



|        |                |                        |               |
|--------|----------------|------------------------|---------------|
| 주 제:   | “ 성가정 ”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 2009년 12월 27일 |
| 복음 묵상: | [루가 2,41 - 52] | [집회 3,3-7.14-17 가]     | [골로 3,12-21]  |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가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와 교회의 기초 단위로써 모든 덕행을 수련하는 학교이고, 부모는 첫째가는 신앙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현대사목헌장 50 항, 52 항 참조)

20세기말 유럽의 산업 사회가 근로자들에게 가정 중심의 생활을 하기 어렵게 하고,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가정도 생명과 사랑의 온상으로서 가정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생산과 삶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현상은 모든 배움과 생활을 가정 밖에서 의존하고, 가정은 부모, 자녀 모두가 잠시 쉬고 나가는 곳, 하숙집으로 생각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기러기 아빠, 엄마와 이산가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한 학벌만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어지고, 부모도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세상이 되어서 가족이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에,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기에 부모는 자녀들의 참된 교사가 되지 못하여 가정과 사회는 피폐(疲弊)하게 되어 간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 유학한 학생인 朴漢相君이 저지른 “친부모 살인사건”(1994년)과 미래의 꿈과 희망을 짊어지고 나갈 수 없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이들이 이트킨 “지존과 살인사건”(1994년)과 같은 문제들을 또 다시 유발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이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한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곳이 가정이고, 신앙과 사랑과 봉사가 실천으로 전수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라고 부모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분명한 소명의식과 신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맺는 내적 초월적 관계를 장엄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성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가정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자비와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김기흥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그 동안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및 모든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만하게 모든 전례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시기 미사 안내**

- 송년 미사 : 12/31(목) 9:00 pm
-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 2010년 1월 1일: 10:00 am

◇10년이 젊어지는 건강 습관◇

작은 벽돌이 모여 견고한 성을 쌓듯, 작은 습관 하나 하나가 모여서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만든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일 수도 있다. 더 젊고 건강하게, 10년이 젊어지는 건강 습관 12가지를 소개한다. (매주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갑니다.)

1. 음식은 10번이라도 씹고 삼켜라.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30번 씹어 넘기려다, 세 손가락 넘기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10번이라도 꼭꼭 씹어서 삼킨다. 고기를 먹으면 10번이 모자라겠지만 라면을 먹을 때도 10번은 씹어야 위에서 자연스럽게 소화시킬 수 있다.



41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42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43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44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45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46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48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49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50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51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52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1분 명상

♡"4 가지 친구"♡

\* 첫째 꽃과 같은 친구 \*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내 친구 맞아?”

\* 둘째 저울과 같은 친구 \*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울입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이익이 큰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 같은 친구입니다.

\* 셋째 산과 같은 친구 \*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자리에서 반겨 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 넷째 땅과같은 친구 \*

땅은 뭇 생명의 싹을 튀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친구가 있는지 이 해가 가지 전에 주위를 돌아봅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1 코린 8.3).”